

울산광역시, 제13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9.21~22) 스크랩

2022.09.23.(금)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울산매일신문	NEAR 실무위원회 개막	
2	신문	연합뉴스	울산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열려... 54개 지자체 참여	
3	신문	매일경제	울산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열려... 54개 지자체 참여	
4	신문	서울매일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5	온라인	부울경뉴스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6	온라인	국제뉴스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7	온라인	울산뉴스투데이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8	온라인	경남에나뉴스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9	온라인	내외일보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10	온라인	이뉴스투데이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11	온라인	플러스코리아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12	온라인	세계타임즈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13	통신사	글로벌뉴스통신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14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NEAR 실무위원회 개막

우성만 기자

승인 2022.09.21 18:05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개막식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옥채 NEAR 사무총장, NEAR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개막식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옥채 NEAR 사무총장, NEAR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울산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열려...54개 지자체 참여

송고시간 | 2022-09-21 06:31

| 활동 보고와 합의문 발표 등 온라인 진행...내년 10월 총회 개최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NEAR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개 회원 단체의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 회원 단체의 자유 발표, NEAR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 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에는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 경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다"라면서 "기후 변화 대응과 세계 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하므로 의장 단체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NEAR은 1996년 한·중·일·러 5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현재 회원은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동북아 지자체 간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이날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1 06:3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울산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열려...54개 지자체 참여

활동 보고와 합의문 발표 등 온라인 진행...내년 10월 총회 개최

입력 : 2022.09.21 06:31:22



△울산시청 전경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NEAR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개 회원 단체의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 회원 단체의 자유 발표, NEAR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 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에는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 경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다"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하므로 의장 단체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NEAR은 1996년 한·중·일·러 5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현재 회원은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동북아 지자체 간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이날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 김정수 ㉠ 승인 2022.09.21 16:39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김정수 shilbo@naver.com

[홈](#) > [뉴스](#) > [사회](#)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2022년 09월 21일 (수) 09:10:33

안테준 ✉ anteajun@naver.com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호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 조하연 기자 Ⓢ 승인 2022.09.21 10:13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시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하연 기자 ovedalife@naver.com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 '제14차 총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21 13:09:28 | 최종수정 2022.09.21 13:09:28 | 김규리 | in@link-today.com



[울산뉴스투데이 = 김규리 기자]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규리 (in@link-today.com)

Copyright@AMI systems Co., All Rights Reserved.

상단기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윤 이민석 기자 | 승인 2022.09.21 11:05

|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울산시청사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석 기자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윤 이수한 기자 | 승인 2022.09.21 08:25

|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울산시청사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한 기자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 박흥식 기자 | ⌚ 승인 2022.09.21 08:30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사진=울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흥식 기자

[울산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2/09/21 [09:52:00]

김미선 기자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잠재력을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울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이호근 📧 / 기사작성 : 2022-09-21 09:19:11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

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윤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9.21 21:25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 ... 온라인 진행
내년 10월 지자체장 참여'제14차 총회'개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9월 21일(수)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환경,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지역 공동 발전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또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늘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2023년 10월 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제14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개최에 이어 내년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도시로서 울산의 브랜드 위상 제고와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개최

✎ 박영기 | Ⓢ 승인 2022.09.21 10:01

5개국 54개 자치단체 참여...온라인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울산시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여개 회원 단체 국장급 간부 140여 명이 참석하며 이는 역대 개최된 실무위원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이다.

행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 회원단체의 자유 발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개정을 위한 의제토의와 합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합의문은 서면의결서 도입, 준회원제 확대, 총회와 실무위원회 개최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효대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의장 단체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기반(플랫폼)으로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동북아 지자체 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